

[98 JCC(예수공동체 축제: Jesus Community Celebration)]

특별새벽기도 /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12)

세상의 핍박

[본문 요한복음 15:18-27] 하용조 목사 / 페이지수: 6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기도제목을 드렸습니다.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을 연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째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금년에는 ‘새벽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20일 특별새벽기도회가 끝나면 일산과 분당과 산본 등의 기도처소로 돌아가시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온누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새벽을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새벽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체질을 그렇게 만드십시오. 새벽에 간신히 일어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선한 일은 선한 일을 하기 쉬운 사람이 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도 아무런 갈등 없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능적으로 새벽기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새벽에 누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데서 옵니다. 우리의 몸을 기도하는 체질로 바꿔만 놓으면 작은 실수나 실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환란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금년에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배자요 전도자일 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까닭은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가족 중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를 평생 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저 이뤄야 할 ‘하나님 사랑’

지난 토요일에 보았던 요한복음 15장 9,10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 안에 흠뻑 빠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몸부림쳐봐야 사랑이 되질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돈도 있어야 주지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받으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이 없으면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사랑을 만끽하시고 사랑 안에 완전히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곳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나오고 14장 27절에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기쁨은 가짜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 근심걱정이 없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참으로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기쁩니다. 믿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전도하고 양육했던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달동네 전도를 자주 하셨습니다. 이제는 몸이 아프셔서 못하지만 평생 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하셨습니다. 제가 보니 저희 어머니가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기쁨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전도하면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줍니다.

지난번, 제가 예수향기회를 따라갔다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복 받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습니다.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어느 할머니 한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리같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늙은이들을 온누리 교회가 늘 돌봐주어서 이처럼 따뜻한 밥을 먹게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겠다’면서 그저 목사님이 건강하시고 온누리 교회가 잘 되라고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전혀 보상할 수 없는 사람이 당신을 위하

여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종인가 친구인가

신구약 66권을 요약해서 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성령이 곧 사랑 아닙니까? 생명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효율성이나 가치와는 다릅니다. 그것을 떠난 것입니다. 경제는 효율성을 따집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남는 것이 있고, 그래서 더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쏟아 주는 것입니다. 대가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저희에게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나에게 보상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13~15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과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누가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종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친구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 오는 하나님의 손은 은혜의 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은 믿음의 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여기에 오셨지만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지만 예수를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 내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

인본주의는 주어가 '나', '인간'입니다. 인권이 높아지면 신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신권이 높아지면 인권도 높아집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이상을 세우려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간은 존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인간도 무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만을 보려고 합니다.

민주화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완성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이나 민주화는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면 인간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참된 민주화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를 경험합니다.

인간의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극성했던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르짖을 때 인간은 참담한 현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때 진정한 축복이 옵니다. 교회도 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민주화는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주화가 되고 자유가 생깁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 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없이 정치, 경제, 사회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하려 했지만 최악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공산주의 이론과 논리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혁명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나라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에서부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 여러분을 목사로 만들고 장로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과실을 많이 맺게 하는 것입니다.

과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맺히는 것이요, 외적인 열매는 전도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높이는 사람도 함께 높아집니다.

모든 부인들이여, 여러분의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왕비가 될 것입니다.

모든 남성들이여, 당신의 부인을 기막힌 존재로 대접하십시오. 부인을 때리고 욕하면 당신은 욕을 당하는 여자의 남편이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당신의 부인을 공주같이, 여왕같이 섬기면 당신은 그런 사람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접하십시오. 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입니다. 이것이 18~27절까지의 요점입니다.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서 판을 걸어치울까요, 아니면 환영하며 함께 하자고 청할까요?

예전에 연예인교회를 섬길 때 제가 방송국에 가서 전도를 하다보면 담배를 피우다가 저를 보고 놀라서 불이 붙은 담배를 주머니에 넣는 집사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보고 놀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18,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미운 가시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란 세상에 속한 마귀를 의미하고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적인 사회체계를 말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인정받고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사회구조 속에서도 인격과 삶을 통해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뛰어 나아가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영적전쟁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영적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마귀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까지 왔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철옹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훈련된 군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뚫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때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나타납니다. 그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습니다.

전쟁의 비결은 거룩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앞장서시고 우리는 뒤를 따르면 됩니다. 이미 이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절망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20~27절입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 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 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전쟁의 대안으로 보내주신 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는 두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기도요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전쟁에서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